



미국 1/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4월 26일 미 상무부는 미국의 1/4분기 GDP 성장률이 2.5%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시장 예상치인 3.0%를 하회하는 것임.

- 미국의 1/4분기 GDP 성장률은 2012년 4/4분기 0.4%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, 4/4분기 성장률 둔화는 국방부 투자가 22.2%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정부회계 상의 문제 때문이었음.
- 시장은 견고한 소비지출의 증가로 2013년 1/4분기 3.0%의 성장률 회복을 예상하였으나 성장률 잠정치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짐.
- 항목별로는 소비지출이 2010년 4/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3.2%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재고투자가 4배 가량 증가한 반면,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 프로그램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은 4.1% 감소하였고 순수출도 감소하면서 GDP 성장을 제한하였음.
- 2/4분기 GDP 성장률은 2013년 3월 이후 발동된 시퀘스터의 영향과 2013년 초부터 시작된 부유층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소비지출 둔화 등으로 1/4분기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유로지역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암울한 수준이며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평가함.

- WSJ는 대공황 이후 가장 경기침체가 심했던 1980년대 초반에도 미국경제는 15분기 평균 5.3% 성장한 바 있으며 소폭의 불황을 경험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도 각각 3.4%, 2.9%의 성장을 유지한 바 있으나, 이번 경기침체는 15분기 평균 2.1% 성장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.
- 이는 전통적으로 불황 이후 경기회복을 이끌어왔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가계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.
- 신문은 또한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연평균 3% 이상 성장하던 미국 경제가 2000년대 이후 금융 위기를 제외하고도 분기 성장률이 2.4%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장세 둔화가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.

- 5월 1일 발표된 제조업 지수와 건설지출, 민간고용 지표도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/4분기 성장률 전망을 어렵게 함.
 - 미국 공급관리자협회(ISM)가 발표하는 4월 제조업지수는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50.7을 기록했으며, 이는 3월의 51.3과 시장 예측치 50.9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.
 - 미 상무부는 3월 건설지출이 전월대비 1.7% 감소하면서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는 공공부문 건설지출이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인 4.1% 감소를 나타냈고 정부 건설지출도 4.3% 감소하였기 때문임.
 - 또한 미국 고용분석업체 ADP가 발표한 4월 민간부문 고용은 11만 9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월의 13만 1천 명 보다 1만 2천 명 둔화된 것임.

- 5월 1일 연준은 초저금리와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채권매입규모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.
 - 5월 1일 FOMC회의 이후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, 노동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매달 850억 달러규모의 채권 매입을 이어가겠다고 밝힘.
 - 또한 연준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 채권 매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함.
 - 그러나 5일 BoA의 브라이언 스메들리는 정부의 긴축으로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양적완화 기조가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- 유럽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키프로스에 이어 슬로베니아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,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경제마저 낮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 등)